

한국의 FTA 추진 정책과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

이근영*

The Korean FTA Drive Policy and Suggestion of Korea · China FTA

Lee Keun Young*

요 약

한국 정부는 2003년 FTA 추진 로드맵에서 밝힌 '동시다발적이고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FTA 추진 전략'에 따라 칠레, 싱가포르, EU, MERCOSUR, ASEAN 등 세계 22개국과 FTA가 이미 발효되었거나 FTA 협상이 진행 또는 추진되고 있다. 한·중 FTA 협상에서는 무엇보다 관세인하 전략의 추진과 함께 중국의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각종 비관세장벽의 철폐 노력이 필요하다. 동시에 중국 내 한국 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시키는 노력과 함께 농산물뿐만 아니라 제조업 분야에서도 전방위적인 수입확대가 예상되므로 한·중 FTA 원산지 기준을 강화하는 등 중국을 경유한 우회수출 방지를 위한 노력도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된다.

Abstract

In accordance with the promotional strategy of the 'simultaneously occurring and high-level comprehensive FTA that Korean government made clear in the FTA promotion roadmap in 2003, it has already entered into FTA with 22 countries such as Chile, Singapore, EU, MERCOSUR, ASEAN and the like but is progressing or promoting the negotiation about FTA. It is necessary to make efforts to lift all sorts of non-tariff barriers that put restrictions on the import of China with the promotion of the lowering of customs duties in the negotiation of FTA between Korea and China. It is anticipated that imports will be expanded in the manufacturing field as well as agricultural products with the efforts to improve the business management environment of Korean firms within China. Therefore, it is a very important task to make efforts to prevent the roundabout trade made via China by reinforcing the standard and criterion for the origin of country in the Korea · China FTA.

▶ Keyword :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origin of country) MERCOSURE, 비관세장벽(NTB)

• 제1저자 : 이근영

• 투고일 : 2009. 07. 22, 심사일 : 2009. 07. 24, 게재확정일 : 2009. 07. 28.

* 경원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 이 연구는 2009년도 경원대학교 지원에 의한 결과임.

I. 서론

오늘날 세계경제는 국경을 초월하는 세계화가 급속히 진전되는 가운데, 국가들 사이의 경제블록화 등으로 인하여 통합과 분열의 이율배반적 흐름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급변하는 세계무역질서에 대응하여 한국의 국부와 국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은 불가피하다.

국제무역은 '다자주의(multilateralism)'로부터 '지역주의(regionalism)'로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무역정책도 이전의 GATT, WTO로 대표되는 다자주의에서 1990년대 후반부터 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로 전환되고 있다. 그러나 세계 경제의 블록화 추세는 배타적인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참고로 북미지역의 경제통합 이전인 1988년 세계 총 교역대비 NAFTA 역내교역 비중은 6.74%였으나 최근에는 8.83%로 상승하여 역내교역 비중이 31%나 증가하였다[1].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 국가 사이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2개 이상의 국가가 서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고 팔 때 부과하는 관세나 각종 수입제한을 철폐해 통상을 자유화하는 일종의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경제통이라 할 수 있다[2]. 일반적으로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교역관계가 긴밀할수록 경제통합의 이익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는 바, 이 점에서 보면 중국과 한국은 FTA 체결로 높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여건이 상당부분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1992년 공식수교 이후 한국과 중국은 경제 및 비경제적 관계를 심화시켜 왔고, APEC, ASEM, 아세안+3, WTO 등 지역 및 다자간 무역에서의 협력도 강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양국 사이에 FTA 논의가 학계 및 업계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 정부의 FTA 추진 정책과 현황을 살펴보고, 아울러 최근에 급부상하고 있는 한·중 FTA 체결 협상에서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살펴본다.

II. 한국의 FTA 추진 정책

2.1 한국 정부의 FTA 추진 현황

1998년 이후 자유무역협정(FTA)은 한국의 주요 통상정

책으로 추진돼 왔다. 한국 최초의 FTA 협상 국가는 칠레가 되었고 일본이 그 뒤를 이었으나 한국의 FTA추진 정책은 초기부터 난항을 겪었다. 한·칠레 FTA는 협상개시 이후 4년 반이 지난 후인 2004년 4월에야 간신히 발효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FTA추진 정책은 그 후 부터는 탄력을 받아 2004년 11월에는 협상개시 1년여 만에 싱가포르와의 FTA가 타결되었고, 이듬해 7월에는 8개월의 협상기간을 거쳐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 FTA가 맺어졌다.

한편, 2006년 2월에는 한·미 FTA 협상이 시작되었다. 7차 협상까지 많은 협상 난항을 겪고 양국 대통령 사이의 '정치적 담판'으로 2007년 4월 어렵게 협상은 타결되었으나 2년 넘게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한국 정부는 2년 2개월에 걸친 한국과 EU(유럽연합)의 FTA 협상을 2009년 7월 13일 전격적으로 타결시켰다. 프랑스, 영국, 독일 등 27개국 회원이 가입해 있는 EU의 경제규모가 세계 GDP의 30%에 달하는 EU는 지금까지 우리가 FTA를 체결한 지역 중 최대 시장이다.

표 1. 한·EU FTA 분야별 타결 내용
Table 1. Contents of Korea·EU FTA

한국산 자동차	-1500cc 초과 중대형차 3년 안에 관세(10%) 철폐 -1500cc 이하 소형차 5년 안에 관세(10%) 철폐
EU산 자동차	-1500cc 초과 3년 안에 관세(8%) 철폐 -1500cc 이하 5년 안에 관세(8%) 철폐
EU산 돼지고기	-냉장육 전체(22.5%), 냉동 삼겹살(25%)은 10년 안에 관세 철폐 -냉동육 중 삼겹살 이외 부위는 5년 안에 관세(25%) 철폐
약인	-FTA 발효 동시에 관세(15%) 철폐
쌀	-FTA 개방 품목서 제외
원산지 비중	-자동차의 경우 부품의 55% 이상은 한국산이어야 함
관세 환급	-한국의 관세환급 제도(수입 원자재에 매겼던 관세를 다시 기업에 돌려주는 것)는 현행 유지. -단, FTA 발효 5년 뒤부터 역외산 부품이 급격히 증가하면 환급관세를 상한(5%)을 정해 환급폭을 줄이기로

표 1과 같이 한·EU FTA에서 상품의 경우 FTA 발효 후 3년 안에 관세의 99%(품목기준)를 철폐하기로 해 자동차·가전업종은 혜택을 보고, 정밀기계 업종은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선을 EU로 다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농축산업 중 특히 부가가치가 높은 치즈·분유 등의 산업

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사후 조치가 필요할 전망이다.

표 2. 우리나라 FTA 추진현황 (2009.06.30 현재)
Table 2. Drive status of Korea FTA

구분	협정	연구 합의	협상 개시	협상 타결	협정 서명	발효
발효된 FTA	한·칠레 FTA	98/11/1	99/12/14	02/10/25	02/10/25	04/04/01
	한·싱가포르 FTA	02/11/14	04/01/27	04/11/29	04/11/29	06/03/02
	한·EU FTA	04/05/14	05/01/18	05/07/12	05/07/12	06/09/01
	한·ASEAN FTA(상품)	03/08/30	05/02/23	06/04/28	06/08/24	07/06/01
	한·ASEAN FTA(서비스)	03/08/30	05/02/23		07/11/21	09/05/01
서명 및 협상타결 FTA	한·ASEAN FTA(투자)	04/04/02	04/01/30	09/04/08	09/06/02	
	한·미국 FTA	04/01/01	06/06/05	07/04/02		
	한·인도 FTA	04/00/	06/03/23		09/02/09	
	한·EU FTA	05/05/15	07/05/01	09/07/13	09/07/13	
협상중인 FTA	한·캐나다 FTA	04/01/	05/07/28			
	한·멕시코 FTA	02/07/01	06/02/07			
	한·GCC FTA	07/01/21	08/04/05			
	한·호주 FTA	06/01/2/	09/05/19			
	한·뉴질랜드 FTA	08/05/16	09/06/08			
	한·페루 FTA	06/01/	09/03/16			
협상전 연구 FTA	한·일본 FTA	98/11/	03/01/22	(04/11/03. 6차 협상 잠정 중단)		
	한·중국 FTA	04/09/				

FTA					
한·MERCOSUR FTA	04/11				
한·티키키 FTA	08/06/				
한·러시아 FTA	05/11/				
한·콜롬비아 FTA					
한·이스라엘 FTA					

자료: 외교통상부 FTA국 자료를 연구자가 재구성함.

표 2와 같이 한국 정부는 현재 칠레·싱가포르·아세안(상품, 서비스)·EFTA 등과 FTA가 발효되었고, 인도·미국·EU·아세안(투자) 등과는 이미 협상이 타결되었다. 또한, 캐나다·멕시코·호주 등 6개국과 협상이 진행 중이고, 일본, 중국, 터키, MERCOSUR 등 7개국과 '협상 전 연구' 중이므로 머지않아 협상이 개시될 전망이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한·중·일 FTA 혹은 동아시아 FTA(EAFTA)도 점진적으로 성사시킴으로써 이를 통해 동아시아 지역주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3]

2.2 한국 정부의 FTA 추진 명분

1992년 EU의 출범과 1994년 NAFTA의 발효를 계기로 지역주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대외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수출의존형 경제발전 전략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수출시장의 안정적 확보는 한국의 미래가 달린 문제이며, FTA 확산전략은 그 담보라는 주장이다[4]. 실제로, 다자주의 원칙만을 고집하던 한국정부가 1998년 FTA 정책 추진을 공표하여 내세운 명분은 매우 단순한 것으로 지역주의와 FTA의 확산 추세 속에서 한국이 FTA를 체결하지 않는 소수국가로 남을 수는 없다고 하는 즉, '다들 하는데 우리만 안할 수는 없다'는 단순 논리가 한국의 FTA 추진 첫 번째 이유가 될 것이다[5].

그 밖에 우리나라의 FTA 추진 필요성을 살펴보면 첫째,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자유무역협정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우리나라 경제체제의 선진화 필요성이다. 즉, FTA 체결 시 국내체도가 국제기준에 합치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우리나라의 경제체도

가 투명해지고 통상 분쟁 요인이 감소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셋째, 해외투자의 적극적 유치 가능성이다. 즉, FTA는 무역 자유화 뿐만 아니라 투자자유화도 포함하므로 역내간의 투자 활성화와 더불어 역외국으로부터의 투자 유발 효과가 있다. 넷째, 정치·안보적 목적이다. 즉, 냉전체제의 와해 이후 경제적 긴밀화가 우방 국가 결성에 중요한 동기가 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 일본, EU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체결로 이들 국가 기업들의 우리나라에 대한 진출확대로 이해관계가 제고 되면, 한반도 안정에 더 큰 관심을 가질 것이다(6).

한국 정부는 한·일, 한·중, 한·중·일, 한·ASEAN FTA 등과 같은 역내 FTA 네트워크를 중층적으로 구축해감으로써 중국에는 그것이 EAFTA로 발전되고, 동아시아경제 공동체는 EAFTA를 기반으로 하여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7).

2.3 한국 정부의 FTA 추진 전략

한국 정부는 2003년 FTA 추진 로드맵에서 밝힌 한국 정부의 FTA 전략을 보면 첫째, 추진 방법은 동시다발적이다. 한국은 짧은 기간 안에 여러 나라와 FTA를 추진함으로써 그 간 지체된 FTA 체결 진도를 단기간 내에 만회하기 위해서는 동시다발적인 FTA 확산정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둘째, 추진 지향점은 거대·선진 경제권 및 신흥·유망시장과의 FTA체결이다. 한국이 기왕 개방형 선진통상국가로 갈 거라면 한국 경제의 선진화와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대·선진 경제권과의 FTA 체결이 궁극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 셋째, 추진하는 FTA의 내용은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이다. FTA 체결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단지 상품분야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기술표준 등 광범위한 분야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 체결을 지향해야 한다. 넷째,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FTA를 추진한다. FTA에는 사회·경제적 고통이 따르기 마련이므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국민적 지지를 받기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8).

한국 정부는 이러한 로드맵에 근거하여 동시다발적으로 포괄적인 FTA를 추진하되 중·장기적으로는 거대·선진 경제권과 FTA를 지향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정해진 기준에 의해 거대·선진 경제권으로 가는 교두보가 될 만한 국가들을 선정하여 FTA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은 미국, 일본, 중국, EU, ASEAN 등 5개 국가와 지역이 우리나라 전체 무역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장기적으로 궁극적인 정부의 FTA 추진 목표는 경제의 선진화와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대·선진

경제권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다.

III. 한·중 FTA의 시사점

3.1 한·중 FTA의 추진 동기

한국과 중국의 무역 및 투자관계는 1992년 수교 이후 폭발적으로 성장해왔다. 한국의 대외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거의 20%에 달하게 되었고, 중국은 이제 한국의 명실상부한 제1의 교역상대국이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급속한 경제적 관계의 확대는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의 지속적 증가를 야기하여 양국 간 통상마찰의 중요한 원인이 되어 왔으며, 이러한 통상 문제들을 관리하기 위해 한·중 간 경제협력의 수준을 높이고 제도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9).

여기서 한·중 FTA 추진 동기를 각각 양국 입장에서 알아본다.

먼저 한국 측 입장에서 살펴보면, 첫째로 아시아 경제통합의 필요성이다. 한·중 FTA는 궁극적으로 아시아 경제협력과 통합을 위한 기초 단계의 작업으로써 현재 아시아 전역에서 진행되는 FTA 추진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둘째로 수출 시장의 안정적 확보로서의 필요성이다. 중국은 세계 인구의 22%와 세계 GDP의 3%를 차지하는 인구 대국이고, 특히 최근의 고속발전에 힘입어 경제규모는 세계 3위권이 되었다. 이러한 고속성장에 따라 시장규모도 계속 확대되어 수입 시장은 2015년 실질 구매력기준 GDP는 94,000억 달러에 달해 미국과 대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로 FTA를 통한 지속적 경제성장의 필요성이다. 한·중 FTA가 체결되면 무역장벽의 철폐를 통해 무역규모가 확대될 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에 따른 동태적인 효과로 국내 실질GDP와 후생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넷째로 FTA를 통한 정치·외교적 동기로서의 필요성이다. 한국과 중국은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싸워왔고 또 협력했을 뿐 아니라 지리적·정치적으로 밀접한 이해관계가 상존하는 나라이다.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한·중 FTA를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 줄 것을 기대한다.

다음으로 중국 측 입장에서 살펴보면, 첫째로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중국은 한국을 기술수준 등에서 따라잡을 만하고 경제구조상 상호보완성이 높으며, 또한 정치적으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상의 FTA 파트너로 파악하고 있다. 둘째로 외교전략 측면에서도 중국은 한·중 FTA를 통해 미국의 동아시아에서의 영향력 강화에 대응하고, 아울러

일본과의 역내 지역협력에서의 주도권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셋째로 한·중 FTA는 중국의 한반도 관리의 정치·경제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예를 들어, 한·중 FTA 체결로 한국의 대중국 투자가 활성화되면 중국 동북지역에 한국 자본의 진출이 확대될 수 있고, 이는 한·북·중 3국가 사이에 경제협력을 촉진시킴으로써 북한경제의 안정에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3.2 한·중 FTA 협상의 전개 과정

한국과 중국 두 나라는 2004년 11월 ASEAN+3 회담 중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2005년부터 2년간 한·중 FTA 민간 공동 연구 실시에 합의하고 각각 중국의 국무원발전연구중심(DRC)과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을 간사기관으로 지정하였다.

표 3. 한·중 FTA 협상 추진 현황
Table 3. Drive status of Korea·China FTA

2004년 09월	ASEAN+3 경제장관회의의 계기 한·중 통상장관회담시 민간공동연구 개시 추진 합의
2005년	2005년부터 중국의 국무원발전연구중심(DRC)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간 공동연구 개시, 1년차 연구수행
2006년	민간공동연구 2년차 연구수행 후 11월 연구종료 -한·중 FTA에 대한 보다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 산관학 공동연구 필요성을 정책제안에서 제시
2006년 11월 7일	APEC 각료회의의 계기 한·중 통상장관회담에서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를 2007년부터 개시하기로 합의
2007년 3월 22~23일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 1차 회의 개최(북경) - 공동연구 운영계획, 향후 작성할 산관학 연구보고서의 목차 및 체계 등을 확정 - 제2차 회의시 6월중 한국에서 상품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합의

자료: 2009. 06. 30 (외교통상부 FTA국)

표 3과 같이 두 기관은 한·중 FTA의 거시경제적 효과, 민간분야 도출 및 산업별 영향, 민감 분야 등에 대한 민간공동연구를 진행해왔으며, 2006년 11월 연구가 종료되었고, 공식 연구결과도 이미 발표된 상태이다.

한·중 FTA는 양국이 제조업 강국을 상대로 한 유일한 FTA이다. 중국은 이미 ASEAN, 칠레, 파키스탄, 뉴질랜드 등과 FTA를 타결했고, 호주, GCC, 싱가포르, 페루, 아이슬

랜드 등과 협상중이며, 한국, 인도, 남아공, MERCOSUR 등과 논의 중이다. 한편, 중국 입장에서 본 한·중 FTA는 동북아 주도권 확보 차원에서 접근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중국의 3대 교역국(미국, 일본, 한국) 중의 한 나라로써 한·미·일 3국이 FTA 체결로 정치적·경제적 동맹을 강화할 경우에 중국은 국제사회 및 동북아에서 전세기능 강화를 희망하고 있다.

한편, 2006년 11월 17일 APEC 각료회의를 계기로 한·중 통상장관 회담을 갖고 2007년 1년 동안 한·중 FTA에 대해 산·관·학 공동연구를 진행하기로 합의함으로써 한국과 중국의 공식적인 FTA 논의가 시작되었다. 2007년 4월에는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가 방한하여 한·중 FTA의 조속한 협상을 촉구하였고, 산·관·학 연구는 사실상 FTA 예비회담 단계로 간주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08년 중에 제출되는 공동연구 결과에 따라 한·중 FTA 협상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3.3 예상되는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

FTA는 협정국가 사이에 관세와 각종 수입제한 조치들을 철폐하고 자유무역을 실시하지는 것인데, 실제로 한국과 중국의 실질관세율을 비교하면 한·중 간 교역구조로 인해 한국의 관세율이 중국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표 4. 한·중 관세율 비교
Table 4. Tariff rate comparison of Korea & China

		한국의 관세		
		10% 이상	5%이상 10%미만	5% 미만
중국 의 관세	10%이상	-	완성차	-
	5%이상 10%미만	의류	자동차부품, 고무, 플라스틱제품, 가전기기	-
	5% 미만	편직물	섬유직물, 화학섬유, 기타 섬유제품, 가죽 및 모피, 비금속광물, 정밀광학계측기기, 일본기계, 화장품 합성수지, 농약 및 비료, 무기화학, 유기화학, 의약품, 기타화학제품, 기타 공산품	목재 및 종이, 철강제품, 철강 일차재료, 스테인리스강, 철강 및 비합금강, 기타 합금강 및 봉, 석유제품 및 코크스, 전자부품, 통신기기, 컴퓨터, 기타전자제품, 기타 전기기기 및 부품

표 4에서 공산품에 대한 단순평균 명목관세율에서는 중국(9%)이 한국(6.7%)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상대국에 대한 수입액을 가중치로 한 가중평균 명목관세율에서는 한국(4.62%)이 중국(4.49%)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KIEP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이 관세를 완전 철폐할 경우에는 한국의 GDP가 2.52%까지 추가 성장이 가능하고, 중국의 경우 0.78%의 추가 성장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여기에 관세철폐에 더하여 무역장벽을 완전히 제거하고 FTA로 인해 발생하는 무역활성화 효과를 감안하면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는 훨씬 클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한·중 FTA 체결시 단기적으로는 무역확대의 긍정적 효과가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기술혁신 및 생산성 증대를 통해 한국과의 기술격차 해소, 대한민국 수출의 증가로 무역확대 효과의 삭감 및 대중국 무역적자의 확대 등 한국경제에 상대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날 수도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한국과 중국의 양국 간 교역구조에 비추어 볼 때, 한·중 FTA가 체결되면 대부분 최종 소비제품인 중국의 제조업 완제품과 농수산물에 대거 유입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값싼 중국의 제조업 완제품과 농수산물로 인해 중소기업과 농업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도 있고, 한·중 FTA로 제조업의 중국투자가 증가하면 국내의 산업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제조업 부문의 실질률이 증가할 수도 있다. 또한 한·중 FTA는 현실적으로 한·미 FTA와 같은 높은 수준의 FTA가 되기는 어렵고 제조업 부문의 관세인하를 중심으로 하는 낮은 수준의 FTA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한·중 FTA를 통해 한국이 기술혁신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회를 확보하기는 상대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한·미 FTA에서와 같은 경제제도의 체질개선 및 기술학습, 혁신,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제고 등의 동태적 효과를 한·중 FTA로부터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다음으로 한·중 FTA 체결로 가장 우려되고 있는 산업분야는 농·축·수산업이다. 현재 양국의 농·축·수산물의 교역 특징은 중국이 일방적으로 수출하고 한국은 일방적으로 수입하는 구조인데, 특히 중국 농업부문의 규모가 워낙 커서 농업 개방 시 규모의 효과가 한국에 부정적인 형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동북3성을 중심으로 한 중국 동북부 지방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농산물의 작목구조 및 소비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수성에 기초해 볼 때 한국 농업의 특수성이 인정되지 않은 제약 없는 FTA가 될 경우 한국의 일방적인 농산물 수입확대가 발생하여 우리 농가에 커다란 충격을 가져올 수 있다.

3.4 한·중 FTA의 추진 과제와 시사점

한·중 양국의 경제 통상협력이 날이 갈수록 밀접해지고 있는 현실은, 한편으로는 FTA를 통해 상호간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할 필요성을 제기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FTA에 의한 일부 분야의 부정적 충격 또한 매우 클 것임을 의미한다고 보겠다. 따라서 한·중 FTA가 각 산업별로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미리 파악하고 민감 산업에 대한 대안을 준비해나가는 것이 실제로 FTA를 성사시키기 위한 중요한 작업이다. 여기에서 한·중 FTA 이후 대중국 수출 증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관세인하 추진과 함께 중요한 전략은 중국이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각종 비관세조치를 완화 또는 철폐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동시에 한·중 FTA를 통해 중국 내 한국 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시키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한다[10].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한·중 FTA 추진으로 현지법인의 경영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야는 상호 무관세의 실시가 가장 중요시 되었고, 이어서 중국 내 지식재산권 보호, 비즈니스 환경 개선, 비관세장벽 해소, 중국의 서비스 시장 개방, 통관문제 해결 등이 매우 중요하며, 아울러 중국 법인의 원부자재 수입 시 자의적인 관세부과 등 관세평가 문제의 해결 등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따라 한·중 FTA 추진에서 우리 기업의 대중국 무역 및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협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한·중 FTA로 무관세화가 이루어질 경우 중국으로부터의 수입확대는 중국 내 한국계 기업, 중국 로컬기업, 중국 내 제3국계 외자기업 등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중간재보다는 자동차, 의류 등 최종재에서 수입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농산물 이외에 제조업 분야에서도 우리의 민감 품목을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고, 아울러 한·중 FTA 원산지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중국을 경유한 우회수입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IV. 결론

한국 정부는 2003년 수립한 FTA 추진 로드맵에 따라서 동시다발적이고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칠레 등 4개국과 FTA가 발효되었고, 인도, 호주 등 10여개 국가와 협상이 타결되었거나 진행 중이며, 머지않아 중국, 러시아, 터키, 남미공동시장 등과 협상이 개시될 전망이다.

한국과 중국의 무역 및 투자관계는 1992년 수교 이후 폭발적으로 성장해왔고, 중국은 이제 한국의 명실상부한 제1의 교역상대국이 되었으며, 이러한 급속한 경제적 관계의 확대에 따라 양국 모두 FTA 필요성이 절실하게 되었다.

한·중 FTA 협상에서 중요한 과제는 관세인하 추진과 함께 중국이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각종 비관세조치를 완화 또는 철폐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아울러 중국 내 한국 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다음으로 한·중 FTA 원산지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중국을 경유한 우회수입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아울러 중국의 금융, 유통, 교육, 관광 등 서비스 시장의 개방과 통관문제 해결이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은 이미 한·미 FTA의 타결로 이후 한·중 FTA 협상에서 보다 강화된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경제적 효과에서 검토하였듯이 한·중 FTA 협상에서는 농·축·수산업에 대한 예외조치 혹은 최대한의 유예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편, FTA 체결에는 양국 모두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고, 한·중 국민의 우호적인 정서는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되기 때문에 FTA에 대한 기업 및 국민적 차원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따라서 한·중 FTA가 동아시아 공동번영의 기틀을 마련하는 장이라는 인식이 양국 국민사이에 확산되고, 인근국가들에게까지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1] Nam, Young Sook, "Overview of Industry Prospects," in *China in the World Economy: The Domestic Policy Challenges*. Paris: OECD, 2002.

[2] 이근영, "국제무역의 이론과 실무," 무역경영사, 137-138쪽, 2007.

[3]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국, "2009년도 FTA 추진현황 및 계획," 외교통상부, 2009. 6.

[4] 지만수, "한·중 FTA,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KIEP 연구보고서, 9-15쪽, 2008. 4.

[5] Chungsoo Kim, "Perceptions on Free Trade: The Korean Debate Over the Japan-Korea Free Trade Agreement," CNAPS Working Paper, pp. 176-178(Spring 2001).

[6] 이근영, "한·칠레 FTA의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한국

컴퓨터정보학회 논문지 제10권, 제5호, 282-283쪽, 2005년 11월

[7] 최태욱, "한국 정부의 FTA 추진전략과 문제점," 국제관계연구 제12권 제1호, 35-39쪽, 2007.

[8] 이균, "지역주의와 한국의 FTA 정책," 물류학회지, 제17권, 제2호, 251-254쪽, 2007년 6월

[9] 이근영, "해외시장조사에 관한 연구,"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논문지, 제12권, 제1호, 201-203쪽, 2007년 11월

[10] 양평섭 외 5인, "한·중 교역 특성과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 KIEP 연구보고서 07-08, 14-16쪽, 2007.

[11] www.fta.go.kr

[12] www.kiep.go.kr

[13] www.kita.net

[14] www.Globalwindow.org

[15] www.chinaemb.or.kr/kor/

저자소개

이근영

중앙대학교 경상대학 경제학과 졸업
 서강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경영학석사)
 세종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졸업
 (경제학박사)
 동국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졸업
 (교육학박사)
 (주)L/G전자 자재부장,
 특판영업부장, 미쿠수출부장
 (주)L/G전자 남미 칠레지사장,
 파나마 현지법인장
 현재 : 경원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관심분야 : 국제무역, 경영정보, 교육
 행정